



윤병주/국립의료원 안과 과장

안 질환과 관리

휴가 및 방학 등으로 휴양지를 찾아 피서를 즐기는 여름철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고 위생상태가 나빠 전염병이 만연되기 쉽다.

특히 눈병은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옮겨지기 쉬운 병이라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위와 더불어 짜증을 더 해 주고 있다.

유행성 각 결막염

환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유행성 각 결막염은 아데노 바이러스 8형과 19형이 원인이며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고 직접 또는 간접 접촉으로도 전염된다. 이전에

도 특히 여름철에 만연했으나 요즈음은 일년 내내 연중 행사처럼 유행하는 병이다. 보통 양안에 발병되나 때로는 한쪽 눈에만 발병하는 경우도 있으며 발병 초기에 충혈, 중등도의 통증이 있고 이물질 및 눈물이 많이 나온다.

때로는 결막염 발생후 약5~14일 사이에 눈이 몹시 부시고 눈을 잘 뜰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는 표층각막염이 병발했기 때문이며 이때 각막상피하에 나타난 원형의 혼탁들은 수개월 내지 수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심할 경우 각막궤양까지 생겨 심각한 결과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대개는 각막에 반흔을 남기지 않고 2~3주 정도면 치유되지만 각막염의 후유증으로 각막에 혼탁이 남으로써 어린이에게는 시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력보호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상담 및 치료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어른에서는 대부분 눈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어린이에게서는 고열, 설사, 인두통 등 감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2차적 세균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 외에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각막염 증세 등 증상완화 및 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제 안약을 투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제 안약을 장기간 투여할 경우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처방없이 환자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치료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 환자와의 접촉을 가급적

66

안질환이 일단 발병되면 전문의의 진찰 및 치료를 받아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피하고 눈에 손을 대지 않으며 외출후 돌아와서 항상 손을 씻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급성 출혈성 결막염

한때 아폴로(Apollo) 눈병이라고 불리웠던 급성 출혈성 결막염도 여름철에 많이 볼 수 있는 눈병 중 하나인데 수영장에서도 옮을 수 있고 잠복기가 8~48시간으로 짧고 병의 경과도 5~7일 정도로 짧으므로 유행성 각 결막염과 구별되어 진다. 증상과 치료는 유행성 각 결막염과 비슷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전염병 이외에 꽃가루, 동물성 털, 풀, 집먼지 등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과 천식, 습진 등의 병역이 있는 사람에게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흔히 관찰되는데 특히 3~6월 꽃철에 꽃가루의 성분이 눈 결막에 들어가 항원이 되어 염증을

일으켜 눈이 가렵고 충혈, 눈물이 심해서 손으로 마찰하여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이차적인 병변을 일으키는데 이는 과민성인 사람에게 더욱 심하다.

예방법으로는 맑은날 외출을 가능한 한 삼가하고 적당한 방진안경을 착용하고 외출직후 맑은 물로 세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고 심하면 안과 전문의의 검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춘계 각 결막염

또한 보통 사춘기 이전에 발병하는 춘계 각 결막염은 봄, 여름에 발병했다가 서늘한 가을이 되면 증상이 회복된다. 이도 역시 일종의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5~10년간 재발이 지속되며 사춘기가 지나 성인이 되면 후유증없이 회복된다. 증상으로는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끈끈한 실같은 분비물과 결막에 비대한 유두를 동반한 결막 충혈을 볼 수 있는데 치료는 이것 역시 대중요법이며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치료한다. 스테로이드 점안약이 소양증 등의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녹내장, 백내장 등의 합병증에 유의하여야 하며 그외에 혈관 수축제, 냉압법 등도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환경 및 개인 위생 관리가 여름철 안질환 예방에 최선의 방법이며 일단 발병후에는 전문의의 진찰 및 치료를 받아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우표옆에 썰 한장 이웃위한 작은정성